

제17회 서울시 건축상

길기석/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장

현재 바람직한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상으로는 서울시 건축상이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민간부문의 상들이 대부분 설계우수작을 공모하여 창작성을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 건축상은 그 대상을 서울이라는 도시내로 한정하여 기존 공인된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관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상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이 서울시 건축상이 '79년에 제정된 이래 올해로 제17회 시상식을 갖게 된다. 올해 1999년은 문화관광부에서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우리 건축문화의 창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해이며 새 천년으로 가는 문화의 전환점에서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시상식은 어느 해보다 그 의미

와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상의 연혁

건축상은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여 서울의 도시경관개선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아래 시장방침으로 '79. 2. 5 시당한 제1회 건축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80년, '81년에만 사회적 혼란으로 건축상 수상이 유보되었을 뿐 그 외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다.

'79년부터 '84년까지는 응모대상을 전년도 준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85년부터는 전 2개년도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응모기회를 확대하였고, '86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건축상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상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98년부터는 비주거용과 주거용의 건물 특성이 틀린 점을 고려하여 주거부문의 응모장려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입상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올해부터는 준공건축물부문외에도 야간경관조명상부문을 신설하여 앞으로 서울의 야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도입, 개선해나갈 것이다.

제17회 건축상 수상작 선정현황

1) 응모작품현황

올해는 IMF라는 경제침체기 때문에 응모작이 적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다행이 그전에 시공을 착수했던 건축물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응모작이 44점으로 예년에 비해 적지 않았고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야간경관조명분야도 생각보다 많은 작품(18점)이 접수되어 총 62점을 심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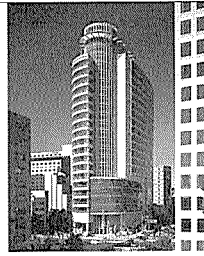
2) 수상작 심사현황

'99. 3. 15. 고려대 이정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한건축학회(이경희), 건축가협회(김한근), 서울건축사회(우남용)를 포함한 건축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준공건축물부문을 심사하여 입상작으로 금상1, 은상2, 동상4, 장려상3 등 총10작품을 선정하였다. 다음날 3. 16.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위원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명분야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5작품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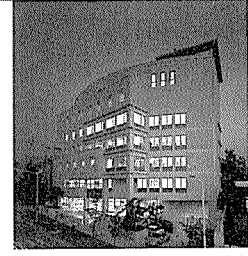
심사방법은 우선 작품설명 및 사진이 기록된 패널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 일단 입상대상작 선정을 한 후, 현장답사를 통하여 입상작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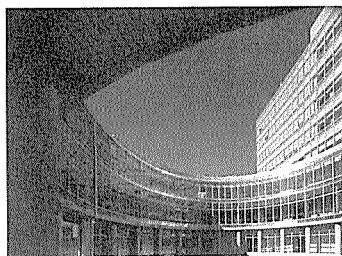
기상청 청사 1



한국중공업사옥



고려포리머사옥



기상청 청사 2



초록마을



연세대상남경영관

3) 시상계획

시상은 설계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건축주에게는 상장과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수상기념동판을, 그리고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설계자에게 수여되는 상금내역은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고 기타 특전으로는 금상수상을 한 건축사는 전시회때 수상작의 본인의 기타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개인전시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그의 업무관련 건축사행정처분시에도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99. 5. 12. 세종문화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심사위원, 건축관련단체장, 시의원 및 하객 등을 모시고 가질 예정이며, 동일장소에서 5. 17.까지 일주일간 전시회를 갖게 된다.

수상작과 심사평

올해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에서 특이사항은 관공서 건물이 2건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1건이 금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관공서 현상설계시 종래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상징성있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디자인이 선호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수상작 심사평을 간단히 소개하면 금상을 받은 기상청 청사는 후면의 독특한 원형 중정을 중심으로 회랑주위의 전시, 교

〈표1〉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현황

구분	건물명	위 치	층수	건물용도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금상 (1)	기상청 청사	동작구신대방동 460-18	8/2	공공업무 시설	원도시건축 변용외1	기상청장
						신동아외1
은상 (2)	한국중공업 사옥	강남구 역삼동 838외3	22/9	업무시설	범건축 강기세의 1	한국중공업 동부건설
						도시개발공사 동원건설
동상 (4)	고려포리머 사옥	서초구 방배동 807-3,4	7/2	업무시설	한·공간환경원 한재원	고려포리머
						LG건설
	연세대 상남경영관	서대문신촌동 57-8 일대	6/1	교육연구 시설	창조건축 창조건축	연세대학
						LG건설
양천소방서	양천구 목동 919-6	3/1	공공업무 시설	예지원종합호 원명호	소방본부장	
					대아건설	
장려 (3)	김옥길 기념관	서대문 대신동 92	2/1	근생시설	아르키움 김인철	우성건설
						김동길
						세진주택
호혜섬유 사옥	서초구 서초동 사옥1464-30	10/5	업무시설	코이종합 전병직	코이종합	호혜섬유
						진덕산업
퀀테스 레지던스	관악구 남현동 602-65	4/1	연립주택	아르텍	김관석, 장운규	성제개발
						성제개발

〈표2〉 야간경관조명 부문 수상작 현황

구분	건물명	위 치	층수	건물용도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금상 (1)	코스모 타워	강남구 대치동 1002	20/6	업무시설	나남전기(주) 이종일	한국달베인실공사 나남전기
은상 (1)	포스코 센터	강남구 대치동 892	30/6	업무시설	코리룩스 임경자	포스코 대민전기
동상 (1)	승례문	중구 남대문로 1가	1/10	건축문화재	(주)알토	문화관광부 (주)두보기술단
장려 (2)	갤러리아 백화점	강남구 압구정동 515	4/1	판매시설	에너켄 로버스	한화유통
						에너켄로버스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9/2	국제조명 박철	코이종합 전병직	코이종합	한국방송공사
						대원건설

육기능의 배치가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징적인 Open돔구조로 기상청사로서의 기능과 미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것과 공개공지 조경 등 옥외공간이 잘 설계되어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도가 큰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한국중공업사옥은 대부분의 고층빌딩이 단일형으로 설계되는 반면 원형과 육면체가 조합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서 부드러운 곡선과 외관 직선의 반복이 잘 조화되어 도시미관의 개선에 기여도가 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하나의 은상수상자인 초록마을은 저밀도의 서민APT로 일반APT와는 달리 주거동 입면이 다양하고 색채가 깨끗한 느낌을 주며, 부속동들도 독특하고 친근감 있게 설계되어 있고 옥외공간도 조화롭게 잘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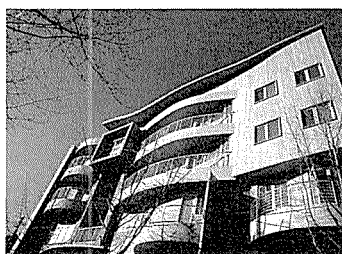
양천 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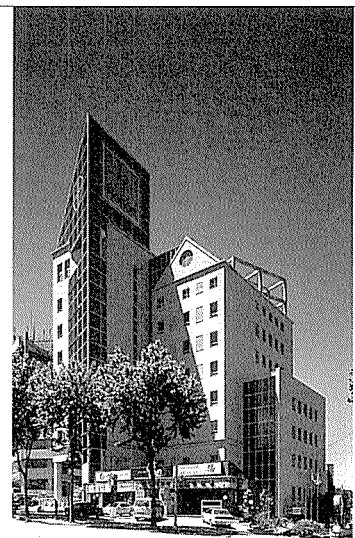
김옥길 기념관



도곡우성캐릭터 199



퀀테스레지던스



호혜섬유사옥

다음 동상 수상작 중 고려포리머사옥은 고
급주거단지라는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외관과 경사로에 접한 대지특성을 잘 살린
설계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연대상남경영
관은 MBA과정의 교육을 위한 건물로서
하부원형건물과 상부육면체건물의 입면분
절과 조화가 조형미를 살리고 있고, 양천
소방서는 소방서의 특성 및 기능을 만족하
면서도 새로운 개념의 소방서디자인이라
는 평가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도곡우성캐
릭터199는 남향위주의 일률적인 주변아
파트단지과 차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고층
주거복합형태로 인근의 개방감과 도시경
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신설된 야간조명조명 부문 수
상작에서 특이사항은 수상작대부분이 민
간대형건축물이었던 반면 유일하게 우리
문화재인 남대문의 야간조명설계가 동상
으로 추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외에도
동상, 교각 등 각종 시설물에도 야간조명
이 확산되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금상을 받은 코스모타워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을 선적으로 재구성하고 건
축표면의 소재를 그림자를 통해 재인식
하도록 유도하여 경관 조명의 표현 가능
성을 크게 높인 가장 바람직한 야간조명
방법으로 평가받았다.
은상을 받은 포스코센터는 철골과 유리
라는 건축소재와 조화를 이룬 경관 조명

으로 저층부는 황색으로 포철의 용광로
이미지를, 상층부는 강한 백색으로 기업
의 진취성을 부각하는 등 조명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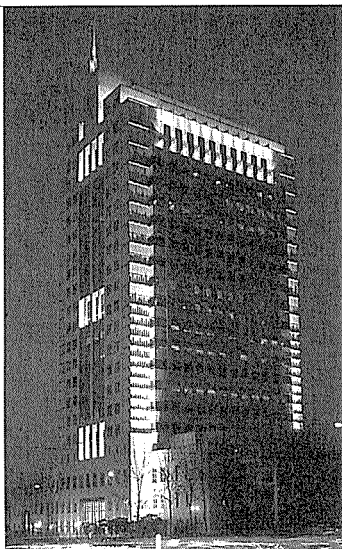
다음 동상 수상작인 남대문은 국보 1호인
역사문화재에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밤에도
송례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생동감있
게 보여주고 우리 고유의 한복에서 느낄 수
있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색깔과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 수상작들도 나름대로 설계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것이 심
사위원들의 공통된 평으로 수상작 수가
한정된 관계로 장려상에 그치거나 탈락
한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감
이 남아있으나, 전시회는 수상에 관계없
이 전 응모작을 전시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상 개선사항

서울시 건축상은 그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인 중에서도 아직도 이
상의 주취나 취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
는 시상금이나 특전이 여타 상보다 적다는
점과 또한 건축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유도할 수 있는 언론, 방송사를 통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울시 건축상 행사를 통하여 서울이라
는 도시의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를 확산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라는 점

에서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홍보비를 충
분히 편성,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
러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시상금도 다
른 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금상에게만 특전으로 주어지던
행정처분상 경감혜택을 동상까지 대상을
늘려 참여동기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도판과 함께 제출하고 있는 설
계설명서는 실제 심사시 시간관계상 활
용치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 제출받아왔
으나, 향후에는 응모자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판에 개
략적으로 수록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상의 취지, 역사와
올해 수상작 소개 및 앞으로 운영상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피력해 보았다.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이라는 도시내 우수한 건
축물을 찾아 상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
써 도시경관의 개선을 촉진시키자는 목
적외에도 전시회를 통해 건축관계자외에
도 일반시민들의 참관을 유도하여 서울
의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본 전시회
를 일반시민들에게도 알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
가 하나의 건축상시상식차원을 넘어서
서울시민들의 공통된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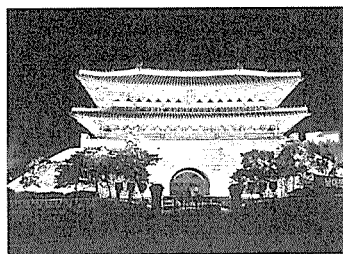
코스모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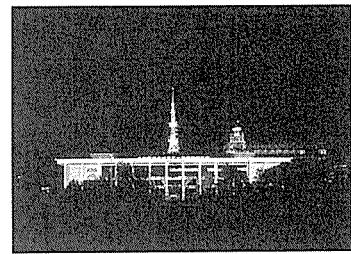
포스크 센터



갤러리아 백화점



송례문



KBS 한국방송공사